

#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장)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1.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형법상 승낙은 명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될 것을 요하며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 ③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④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 할 수 없다.

2.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 ②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 ④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②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장애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4.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 ②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 ④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5. 甲은 호텔객실에서 乙의 우측가슴 부위를 때리고 밟아서 乙에게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乙이 바닥에 쓰러진 채 빈사상태에 빠지자,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밑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결국 乙이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 ② 상해치사죄
- ③ 상해죄 및 과실치사죄
- ④ 상해죄 및 사체손괴죄의 불능미수

6. 강간치상범 甲은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 乙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 ① 강간치상죄와 유기치상죄의 실체적 경합
- ②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 ③ 강간치상죄
- ④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7. 다음 사례 중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 乙이 반자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때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경우
- ②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대항한 경우
- ③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④ 친권자가 자(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경우

8. 甲의 사주를 받은 개가 乙을 물려고 하자 乙은 丙의 유리그릇으로 그 개를 때려 죽사시키고 유리그릇은 파손되었다. 乙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은?

- ① 개와 유리그릇 모두에 대하여 정당방위이다.
- ② 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유리그릇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다.
- ③ 개와 유리그릇 모두에 대하여 긴급피난이다.
- ④ 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유리그릇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이다.

9. 친족상도례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된다.
- ② 친족상도례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에 객관적인 친족관계의 존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③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 ④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다면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장)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19. 甲과 乙 둘만이 참가한 경쟁입찰에서 甲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여 乙이 甲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하여 甲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낙찰가가 낙찰 예상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였고, 甲과 乙 간에 금품수수도 없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② 입찰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죄의 미수이다.  
 ③ 양자 모두 입찰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

20. 甲 등의 근로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면서 직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었는데 사용자 乙은 이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한 후 甲 등에게 직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직장점거를 계속하였다. 甲 등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            ② 퇴거불응죄  
 ③ 공무집행방해죄      ④ 정당행위로서 무죄

21. 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③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④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박탈은 전면적이어서 하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2.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③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  
 ④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23. 甲은 행정당국에서 피해실사를 거쳐 태풍피해복구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당국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미수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④ 형법상 무죄

2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업무방해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5. 공무원(보건복지부의무서기관)인 의사(국립병원 근무)가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후 그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의 죄책은?(최근 판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실제적 경합  
 ③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실제적 경합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실제적 경합

26. 경찰관 甲은 관내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식당 주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고,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이를 보관시킨 후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라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乙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이 乙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                            ② 수뢰죄  
 ③ 직무유기죄와 수뢰죄            ④ 장물양도죄와 수뢰죄

27.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음주운전형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위조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 무죄

#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장)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28.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행위는 무죄로 된다.
- ④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중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9. 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죄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는 모두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양죄에는 모두 자백·자수에 의한 형의 감면규정이 있다.
- ③ 한통의 서면으로서 여러 사람을 무고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④ 피무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기무고의 경우와 달라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30. 甲은 자신의 딸 乙이 丙과 결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乙은 甲이 자신들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죽기로 작정하고 최종적으로 甲에게 그러한 결심을 말하였다. 甲은 乙이 자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乙이 요구하는 권총을 내주었고 乙은 그 권총으로 자살하였다. 甲의 죄책은?

-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촉탁살인죄 ④ 자살방조죄

31.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기대가능성은 없다.
- ②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복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2.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특수절도죄)
- ③ 아파트에 침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입죄)
- ④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배임죄)

33.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③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④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34.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과자를 우송하였는데 잘못 배달되어 乙의 아들인 丙이 과자를 먹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은?

- ① 乙에 대한 살인미수
- ② 丙에 대한 살인미수
- ③ 丙에 대한 과실치사
-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 丙에 대한 과실치사

35.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가져 간 경우
- ②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진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 ③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 ④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장)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4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별하여야 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45. 다음 중 정당방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현재의 침해      ② 방위의사
- ③ 보충성의 원칙      ④ 부당한 침해

46. 채무자 甲이 乙에게 써준 약속어음을 훔쳐 금액을 수정하고 제자리에 놓아 둔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절도죄 부분은 제외,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손괴죄      ② 사문서위조죄
- ③ 사문서변조죄      ④ 무죄

47. 채무자 甲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르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강제집행면탈죄
- ③ 횡령죄      ④ 무죄

48. 甲이 방화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케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49. 교통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甲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와 바뀐 것을 알고 실제 운전자에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350만원을 받아냈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      ② 무고죄      ③ 공갈죄      ④ 무죄

50.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
- ②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를 하다가 후회되어 중지한 경우
- ③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 ④ 강간하려고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